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홍 종 관[†]

대구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며 개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와 관련부처 등에서 제시한 최근의 여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학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하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의 지속성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매우 낮다.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성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대응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 학교폭력 대처방안에서도 먼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고려된 대처방안 이어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방안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대책방안이 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환경적 변화에 부합되는 대책방안이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연계하고 여기에 학교폭력관련기관의 최근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포함된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주요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 이 논문은 2009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종관,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797-6 번지, Tel : 053-620-1413, E-mail : jkhong@dnuc.ac.kr

요즘 학교현장은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관련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측면과 ‘폭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교폭력을 장소적 개념으로 단순히 학교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학교주변’이라는 범위를 한정함에 애매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또래집단의 아지트에서 발생한 구타를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유흥가에서 일어난 학생의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학생이라고 정의한다면 오히려 ‘학생폭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퇴생이나 교사의 폭력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김범수, 2009).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장소나 인물로 국한시키기에는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즉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하고자 했다. 즉 학교폭력 또는 학교주변폭력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유형, 무형의 폭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는 오히려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학교폭력의 개념을 자신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가하는 유형무형의 폭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후자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한다.

최근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87호)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최근(2012.1.26일)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의 학교폭력 유형에 덧붙여서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위의 정의에 따르고 이에 근거하여 실태, 원인, 대처방안을 살펴본다.

학교는 꿈과 이상을 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하여 꾸밈없는 청소년들이 모여 학업을 연마하고 심신을 수련하며 건전한 친교를 함으로 사람을 사람 되게 성장토록 교육하는 신성한 장소이다. 이와 같은 곳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빈번해지고 심각해진다는 것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피해와 우려를 낳게 하여 국가장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과 특히 학교폭력은 성인의 폭력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분석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예방책을 강구하며, 그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교과부,

2009; 김범수, 2009; 홍종관, 2009a).

청소년기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인간발달 단계 중에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및 사회적 성장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급격한 성장 변화로 인해 불안, 초조, 긴장, 정체감 혼미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개인적으로 이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다는 점과 또한 국가적으로 내일의 국가장래를 책임질 주인공인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국가 장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볼 때에 청소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학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김용현, 2003; 김범수, 2009; 교과부, 2009; 홍종관, 2009a;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11; 관계부처합동, 2012).

이미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는 관계부처나 대학의 학위과정이나 관련 학회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이 시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시 이렇게 연구하고자 함은 기존의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의 연구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관련부처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원인과 대처방

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즉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증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학교폭력 관련자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교폭력관련자들이 최근의 학교폭력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이해하여 이러한 학교폭력변화에 부합되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고자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취한다. 즉 학교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문헌, 논문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에서 최근에 발간한 통계자료나 대책방안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원인 그리고 최근의 관계부처가 내어놓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바탕으로 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의 실태에 관한 조사는 교육기본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공시),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표 1. 학교폭력 피해율, 가해율, 심각성 체감도 상황

년도	항목	학교폭력피해율(%)	학교폭력가해율(%)	학교폭력심각성에 대한 체감도(%)
2008		10.5	8.5	28.6
2009		9.4	12.4	32.8
2010		11.8	11.4	38.1

출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1

(여성가족부) 등이 있고 이 외에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크고 작은 조사들이 수행되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에 의한 학교폭력 최근 3년간의 실태조사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율과 가해율 그리고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때부터 학교폭력의 피해경험(53.6%)과 가해경험(57.3%)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으로는 2009년에는 ‘맞았다’, ‘욕설과 모욕적인 말’, ‘돈이나 금품갈취’ 순이었는데, 2010년에는 ‘맞았다’,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말로 협박과 위협’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는 ‘맞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가 가장 높은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가해이유에서 2009년에는 ‘장난’, ‘이유 없음’, ‘상대학생이 잘못해서’ 순이었고, 2010년에는 ‘장난’, ‘상대학생이 잘 못해서’, ‘오해와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최근 1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71.7%)가 받지 않

은 경우보다 많았다. 예방교육방법으로는 주로 ‘단순한 비디오나 영상물 시청’(26.7%), ‘학교폭력전문기관 선생님의 강당 강의’(22.6%), ‘학교폭력전문기관 선생님의 방송 및 시청각 강의’(13.6%), ‘동영상을 활용한 학교선생님의 교육’(13.1%), ‘경찰관 교육’(11.1%) 등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폭력전문기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61.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여러 명의 학생이 자살한 대구지역의 학교폭력 실태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특기할 사항은 학교폭력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이제는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추세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관계부처합동, 2012). 첫째,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경험, 가해학생 58.0%가 초등학교 때 가

표 2. 대구지역 학교폭력 발생현황

연도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가해 학생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심의 및 조치 학생 수								
			서면 사과	접촉 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008	495	1,279	74	24	2	49	662	228	136	100	4
2009	447	1,088	44	13	2	53	533	153	182	59	6
2010	682	1,505	103	50	20	57	746	189	200	125	2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12a

해). 둘째,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연속 동일하게 전체 69% 수준,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증가율을 보아도 2010년 대비 2011년에 중학생의 증가율이 초등학생의 7배, 고등학생의 2배 수준).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악순환 되고 있다(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 비율 10.3%). 넷째,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이 확대되고 있다. 즉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한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나타난다(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당했음). 여섯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하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해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학생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교원의 경우는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에 치우치며,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 유발과 신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학교폭력은 점점 다양화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의 학교폭력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해져가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도 증가하고 있고, 폭력의 지속성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매우 낮다.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방과 대처는 곧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살펴본다.

학교폭력의 배경과 원인은 다양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요인을 크게 분류하여 본다면 개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개인 발달 심리적 요인을,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으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부모, 교원의 낮은 인식 수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전문인력의 부족, 제도적 한계 등이 있다(문희영 외, 1996; 곽형식, 1999; 원명희, 2002; 김용현, 2003; 김범수, 2009,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관계부처합동, 2012).

개인 심리적 요인

개인적 심리적 요인은 청소년기의 발달심리학적 일반적인 특성과 학생 개인이 가지는 특별한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써 발달 심리적인 요인은 다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문희영 외, 1996; 김범수, 2009). 첫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급성장으로 인하여 성적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로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강한 성적 욕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강한 성적 욕구는 사회가 충족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를 지혜롭게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나 교육은 소홀히 한 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욕구불만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행동 표출이 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과도기적 위치에 처해 있다. 이미 아동기를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행동 양식도 용납이 되지 않고 아직 성인의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 혼미 상태를 경험한다. 셋째, 청소년기에 누구나 한번쯤 느끼고 원하는 일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성숙하게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사회 경제적 여건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과 의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적 특징들이 청소년기의 폭력을 비롯한 갖가지 문제 행동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정신적 발달은 육체적 발달보다 늦기 때문에 불안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욕구불만이나 갈등의식을 느끼게 되며, 일체의 권위와 규율에 저항하려는 심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춘기적 특성심리로 인하여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곽형식, 1999).

이제까지 국내·외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개인특성에 관한 일반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분노나 충동성과 같이 정서조절 및 행동 통제 능력, 자아개념, 적대적 귀인과 같은 사

회 인지요인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개인 특성으로 밝혀졌다(박효정 외, 2007a).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공격성과 직결되는 문제행동이다. 학생 개인의 공격성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공격성을 두고 여러 다양한 심리학적 견해들이 있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성장과정에서 무의식에 억압된 원초아의 욕구가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공격성이 학습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자아실현의 욕구와 거부되고 좌절된 정서의 결과로 보고, 인지심리학에서는 학생개인이 가진 사고나 신념이 비합리적이므로 공격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감정 및 욕구 표현능력’, ‘인간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대처능력’, ‘충동조절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이해능력’ 등이 부족한데 이러한 특성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홍종관, 2009b).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심리학적 일반적인 특성과 그리고 학생 각 개인이 가지는 개인 심리학적 특성과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적 요인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이나 정서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가정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즉,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전제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양육방식, 과잉보호나 무관심, 건전한 대화의 부재, 지나

친 기대 등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폭력으로 내몰고 있다.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이기주의, 자녀중심적 가족분위기로 변화하여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원명희, 2002).

가정은 사회화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준거집단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의 문화전달기능, 가족보호기능,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가정이 핵가족화, 결손가정 및 이혼율의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가족생활 공간의 협소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가정이 담당하던 예절이나 도덕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특히 대가족 사회에서의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분담에 의해 학습되어 오던 사회성이나 대인 관계에 대한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곽형식, 1999; 교과부, 2009).

학교폭력의 가정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문희영 외, 1996; 교과부, 2009; 김범수, 2009;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첫째, 먼저, 핵가족화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대가족에서 배울 수 있었던 예의범절이나 협동심, 양보심, 인내심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치료해줄 치료자 또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하여 어른경시 풍조,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둘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 문제이다. 부모

들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나약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것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자녀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점점 증가하면서 그들의 자녀는 점점 소외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불안한 가정보다는 가정 밖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즐겁고 새로운 생활 경험을 찾고자 하는데 잘못하면 폭력까지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이다. 즉 자녀와의 대화와 학교교육참여의 기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형제가 없는 경우 한 자녀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야근문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 기능이 약화된 것도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결합가정이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합이 있는 가정으로는 크게 결손가정, 빈곤가정, 시설가정을 들 수 있는데, 결손 가정은 부모의 어느 일방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는 요즈음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학교폭력 발생의 가정적 요인은 핵가족화와 한 자녀가정, 맞벌이 부부 그리고 결손가정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의 부족,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이다.

학교적 요인

학교폭력에 대한 1차적 원인은 청소년 자신의 발달 심리적 요인과 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겠지만, 학교폭력의 주된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 요소가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주요 요인으로 등장되고 있다(곽형식, 1999, 김범수, 2009).

학교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을 보면, 화장실, 운동장이나 복도, 식당과 같이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학교의 사회적 환경을 보면, 또래나 부모 그리고 교사가 대인관계의 갈등을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았다(박효정 외, 2007).

청소년 폭력의 학교요인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문희영 외, 1996; 교과부, 2009; 김범수, 2009).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과 전인교육의 부재, 교내 시설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이다.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자존심을 침해받거나 충격 받기 쉽다. 그러나 입시 경쟁 속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공부이다. 성적 경쟁의 풍토 속에서 협동심보다는 경쟁심과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아가서는 출세주의를 조장하여 학교에서의 실패는 곧 사회생활의 실패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학에 낙방한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좌절과 실망을 안겨 주며 더 나아가 자포자기에 상태에서 비행을 유발할 확률을 높여 준다.

둘째, 전인교육의 부재이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만남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해 주거나 자율성 및 협동심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학교 내에서도 졸업 후 사회에서도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단지 이해관계에서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그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거나 왕성한 욕구를 발산할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등이 문제이다. 이러한 학교 내 환경은 결국 청소년들을 절름발이로 교육하고 있고,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고 욕구불만에 빠져 방황하다가 불량 학생과 어울리면서 폭력 행위를 자행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의 학교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관계부처합동, 2012).

첫째,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이 미흡하다. 즉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고,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둘째,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교육여건이 어렵다. 즉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된 제도가 미흡하다. 교사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학교폭력 발생의 학교적 요인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및 전인교육의 부재, 청소년기의 정서발달과 욕구를 발산할 시설과 프로그램의 미비, 교사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전문성 부족 등이다.

사회적 요인

사회적 조건이 그 사회의 폭력발생에 영향을 준다. 즉 직업 및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 열등감, 다른 계층으로의 전환 시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포기, 산업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감의 상실 및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제도화된 폭력의 만연, 대중매체에 의한 폭력의 모방과 학습, 사회 전반의 유해 환경 등이 폭력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곽형식, 1999 재인용; 김범수, 2009;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발생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문희영 외, 1996; 원명희, 2002; 관계부처합동, 2012). 첫째,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청소년 유해 환경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중 유희비 마련이 목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유해 환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대중매체의 부정적 기능이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매스컴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극단 상업주의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애정물, 폭력물 등은 성적 충동과 물질적 욕구를 자극시킨다. 특히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감정 반응을 둔화시키며 분노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동기를 조장하여 반사회적인 공격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폭력 장면의 주인공을 영웅화하여 폭력을 미화시킴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게임 등의 영상매체에 접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셋째,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 요령 및 편법주의, 향락주의 등의 부정적인 가치관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경우 현대 사회의 부정적 가치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학교폭력 발생의 사회적 요인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감의 상실 및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제도화된 폭력의 만연, 대중매체에 의한 폭력의 모방과 학습, 사회 전반의 유해 환경 등 이다.

학교폭력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미비로 인해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김범수(2009)는 학교폭력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심각성 인식에 대한 홍보부족’, ‘학교폭력의 신고에 대한 대처 미흡’, ‘경찰 수사에 있어서의 한계’, ‘사전 예방활동의 미흡’, ‘사도 선도활동의 미흡’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문제점으로 ‘학부모들의 안일한 생각’, ‘학부모들의 이해부족’, ‘사후 학생들의 관리·보호 미흡’, ‘산학겸임교사 등의 전문 인력 부족’,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사고’ 등을 들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으로는 ‘동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을 들고 세부적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의 문제점’,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문제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의 문제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문제점’, ‘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자치위원회의 구성의 문

제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달기구 구성의 문제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문제점’, ‘분쟁조정 효력에 관한 문제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그는 관련 법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에 교과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의하면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 및 제도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관계부처합동, 2012). ① 성장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핵심가치인 인성 교육이 소홀하다. 학생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실천, 체험 중심의 교육이 부족하다. ② 학교폭력 신고 조사처리 과정이 문제가 있다. 교과부의 1588-7179, 여가부의 1388, 경찰청의 117 등 신고전화가 각 기관에 산재하여 신고자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③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전학, 특별교육 등 법률 상의 조치의 구속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 ④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권한·역할이 부족하고 개입이 곤란하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 ⑤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하다. ⑥ 학교폭력 유발 환경에 대한 견제·감시 장비가 미비하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장비 미비, 인터넷·SNS에 대한 대책 미비, 일진 등 폭력문화에 대한 규제 대책이 미비하다.

학교폭력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위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제도적 문제점 이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학생(가해자, 피해자), 부모, 교원 등의 인식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은 신고를 해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면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격한 학생은 보복을 두려워하여 방관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학부모의 경우, “아이들은 싸우며 자란다”고 인식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하거나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학생으로 돌려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③ 교원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에 치우치는 온정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 유발과 신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대구교육청, 2012b).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제까지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과 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것과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가·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 보호,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학교폭력 신고 처리를 위한 제도적 한계 등 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은 학생개인의 발달심리적, 가정적, 학교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중다요인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부모, 교사, 학생본인이 함께 가정, 학교,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공동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중심으로, 가정적, 학교적, 사회적 대책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연계한 예방과 대책 방안을 알아본다. 그리고 요즈음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학교폭력 원인을 중심으로 한 대책

개인의 심리적 대책

발달 심리적 원인에서 오는 폭력의 대처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심리적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을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그리고 무한한 잠재가능성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성장에 따르는 다양한 욕구를 건전하게 표출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충분히 하고 전문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순환적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 하여야 한다(곽형식, 1999).

또한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간은 인성에서부

터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일은 문제해결의 근본을 파악하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특기활동, 심성수련, 도덕성 등의 함양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의 지도 등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풍토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원명희, 2002).

앞에서 살펴본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학생의 개인 발달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치료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표 3>과 같은 주제의 집단상담이 있을 수 있다. <표 3>에 제시되는 집단상담 주제는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학생의 개인상담에서도 다루어야 할 상담내용이 된다(홍종관, 2009b).

박성호(2005)와 구분용(2008)은 학교폭력대처를 가해자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피해학생 측면에서 교사나 부모 및 상담자는 피해학생을 감지해야하며,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해자학생 측면에서는 폭력의 규모와 다양성이 파악되어야 하며, 가해행동의 심리적 원인과 가해학생의 특성을 파악해야한다고 보았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의 경우 그 피해의 후유증으로 정서각성 조절기능의 약화, 주의력과 의식기능의 약화, 부정적 자기인식, 타인관계의 부정적 변화, 신체적 증상, 부정적 의미체계 발달, 사회적응 능력의 약화, 성장과 발달 위험, 만성적 적응장애 등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폭력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학교등교를 거부하고, 심리장애를 가지며, 자신도 폭력적 행동을 하게 된다(구분용 외, 2008). 따라서 피해학생의 치유 프로그램이 실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표 3. 가해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종류	내용과 의의
1. 자존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가해학생들은 대개 결손가정이나 학대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라지 못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라면 어떠한 행동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실행에 옮긴다. 이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주의 심리학에서도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낮은 자존감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을 교정한다는 것은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정윤(2009)의 연구에 의하면 '사랑증진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감능력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2.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가해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신의 비행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나 아픔을 주는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증진해주는 상담이 필요하다. 감수성훈련이나 타인중심태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을 통하여 그들에게 공감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양미진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가해자의 배려능력신장에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3.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 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가해학생들은 대체로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서툴다. 비행청소년의 이러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분노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다. 천성문(1999)은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해 인지행동적 집단치료가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4.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상담	가해학생들은 그들의 폭력문제로 인해 친구나 부모나 교사로부터 배척당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폭력행동에 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성 및 인간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가해학생들은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하다. 가해학생들이 타인과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요건과 방법을 훈련하는 집단상담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요건으로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기성장, 타인중심적 태도 등이 있을 수 있고,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갈등해결 그리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기본태도와 방법을 훈련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시한다.
6. 가치명료화 집단상담	가해학생들은 그들이 처한 열악한 가정적 요인들로 인해 어린시절에 제대로 된 개인적 가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그들의 폭행으로 인해 학교나 사회로부터도 멸시와 냉대에 상처를 받으면서 그들의 가치관은 부정적으로 왜곡되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치명료화 집단상담을 통하여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태도를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7. 학습습관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가해학생들이 처음부터 학교폭력학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가정적 요인들로 인해 학교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이 성행하는 한국학교생활에 학습면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비행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 즉 정서장애가 학습부진으로, 학습부진이 품행장애로, 품행장애가 비행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학습기술이난 학습습관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8. 진로탐색 집단상담	진로탐색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에서 중도 탈락되었거나 사회의 주류문화에 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해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9. 현실요법 집단상담	현실요법 집단상담을 통하여 가해학생들의 타인의 욕구를 훼손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학습시키고, 또한 자기통제력의 향상시키며, 가치관이 개인한 필터를 바꿈으로서 대인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10.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중심 집단상담	학교폭력은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 좌절과 비행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아직도 열망하는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인간중심 집단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다.
11. 상처치유를 위한 정신분석 집단상담	학교폭력은 그들이 어린시절 받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그들에게 각인되고 무의식속에 저장된 상처지역은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이들의 무의식속에 잠재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분석 상담이 필요하다.
12. 예술치료를 활용한 상담	가해학생들에게 언어적 상담보다는 놀이, 미술, 음악, 독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①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 ②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③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④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위에서 가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피해학생에게도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개인 심리적 대책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별로 각각 그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심리적 요인과 각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적 대책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가족의 기능, 역할, 그리고 가족성원간의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있어 가정의 기능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은 인간교육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애정을 중심으로 혈연관계의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성숙되는 평생교육의 장이므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다. 즉 ‘부전자전’이라는 속담이나 “문제야는 바로 그 문제가정에 있다”라는 말들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홍종관 외, 2003).

부모들은 항상 자녀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간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대화의 관계를 유지하여 자녀들의 욕구를 건전하게 충족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학교폭력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현상파악이 각별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을 배제하여야 하며, 부부 싸움이나 성인들 간의 폭력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는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화를 통한 교육을 해야 한다(원명희, 2002). 요즘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을 좋게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의 폭력을 부추긴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잘못을 교정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김용헌, 200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12).

가정에서의 환경 개선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부모는 최초의 교사로서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부모는 올바른 가치관 일관된 태도로 자녀에게 항상 모범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은 청소년들의 일차적인 사회관계가 수립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자녀의 생각이나 고민을 알기위해서는 간섭이나 지시, 과잉보호나 기대에 앞서 애정 어린 관심과 대화를 일상화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여야만 한다. 따라서 부모의 올바른 생활 태도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곽형식, 1999; 김영옥, 2008;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12).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의 차별성을 인지시키고 형제들과

의 상부상조적 공동적 삶의 체험을 올바로 경험케 함으로 건전한 대인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시켜 자기조절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의 유아나 아동을 지원하는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 미래의 청소년 폭력과 비행 그리고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교실 등과 같은 성인교육을 실시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자녀에 대한 올바른 부모교육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공감적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아동을 수용하며, 솔직하게 대하는 ‘자녀중심적 태도’를 익혀야 한다. 그리고 자녀와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교육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로는 부모효율성 훈련(PET), 체계적 부모훈련(STEP),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교류분석(TA) 부모교육 등이 있다. 김영옥(2008)은 부모교육과 참여에 대해 자연스런 만남과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의사결정자로서의 참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범수(2009)는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올바른 가정교육관의 확립’, ‘자녀들에 대한 관심’, ‘학부모의 효율적 대응방안’ 등을 든다.

부모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녀와 가해자녀의 징후를 관심을 갖고 살펴본 뒤 이러한 징후가 보이면 즉각적으로 학교와 연합하여 지도에 임해야 할 것이다(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12). 피해자녀의 징후는 다음과 같다. ① 몸이 아

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조퇴가 잦아진다. ②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③ 멍 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④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⑤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헐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⑥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⑦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⑧ 이유 없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⑨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⑩ 친구가 시키는 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리고 가해자녀의 징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② 갑자기 돈 씹씹이가 커졌다. ③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④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⑤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⑥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⑦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⑧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⑨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⑩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2012)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대처하도록 권한다.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는 자녀를 탓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보복하려 하지 말며, 도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녀를 응원해주고, 담임과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며, 증거를 확보한다. 피해자인 자녀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자녀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부모는 가해사실을 부인하지 말며, 피해학생을 탓하지 말고, 정당화 하지 않는다. 또한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며, 포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한 가해자인 자녀의 학교생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적 대책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폭력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피해자의 징후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좋은 관계 맺기 방법 등에 관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학교적 대책

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적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며 학교폭력의 주된 장소가 되는 곳이므로 학교폭력의 예방적 기반조성에 대한 책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실행되고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성취되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줌으로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원명희, 2002). 학생들의 욕구를 학교 내에서 발산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 프로그램, 생활교육 프로그램, 취미활동 프로그램,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 실행함으로써 학생간의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고 자기 존중감을 육성토록 한다. 교사는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부모와의 연계지도체제를 유지하여 폭력적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곽형식, 1999; 박효정, 2007b).

학교에서의 예방책은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입시위주의 비인간적 교육 풍토로 인해 학생들의 욕구나 불만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인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풍토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책임 있는 지도도 중요 하지만, 전 교직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 활동이 더불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학교 상담 및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학생 자치 및 자율 활동과 이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인 배려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만 한다. 이 밖에도 학교가 열린 체계로서 학교 주변의 기구나 시설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문희영 외, 1996; 박효정, 2007b). 김범수(2009)는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학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학교교육에 대한 정상화 노력’, ‘상담 및 인성교육의 강화’, ‘학교 내 여가시설의 확충 및 인센티브 적용’, ‘학생들의 실천사항’ 등을 든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이 가해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이제는 피해학생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제3자를 통해서든 피해학생 본인을 통해서든 먼저 피해

학생의 상태를 살피고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사실 피해학생 본인이 직접 알려올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평소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가 두텁거나 극단적인 고통을 시달리다 못해 알려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학생 부모나 제3자를 통해 알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알려진 학생폭력에 대해서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피해학생을 이해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문제해결에 소극적이 되기 쉬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적극 문제해결 나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교사는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문제파악에 실패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입장도 들어 보다 객관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김용현, 2003; 구본용 외, 2008).

교사는 특히 담임교사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학급내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감지할 수 있다(박명진, 2006; 교과부, 2009).

- ① 수업시간을 학생들이 엄수하지 않는다.
- ② 학생들 간에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 ③ 학교규칙 위반을 하는 학생이 있다.
- ④ 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이 있다.
- ⑤ 학교물건을 파손하는 학생이 있다.
- ⑥ 물건을 도둑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 ⑦ 학생들 간에 자주 싸움이 있다.
- ⑧ 옷이 자주 망가지는 학생이 있다.
- ⑨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학생이 자주 있다.
- ⑩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학생이 있다.
- ⑪ 주변의 학생이 헌담을 해도 반발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 ⑫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
- ⑬ 비싼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는 학생이 있다.
- ⑭ 몸에 다친 상처나 멍자국이 발견되고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 ⑮

교과서나 일기장에 ‘죽어라’ 또는 ‘죽고 싶다’와 같은 폭언이나 자포자기식의 표현이 있다. 이상의 15개 중에서 한 학급에서 체크된 항목수가 7개 이상이면 그 학급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이 많은 고위험 집단으로 보고 즉각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는 사건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보장해주며 피해학생과 면담을 한다.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이 한 학급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학급 담당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장, 학생부장, 상담교사 등 관련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한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경우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에게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피해 상황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지도에 있어서는 폭력행위를 한 원인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돕고, 원인이 분명한 경우 그 원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지도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그 원인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부모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돕는다. 방관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곧 공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를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도한다. 특히 교사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적 대책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을 개발하는 전인교육의 실시가 시급하다. 힘이 차고 넘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서와 체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또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사 특히 담임교사는 가·피해 학생의 징후를 민감하게 알아내어 큰 사건으로 확대되거나 만성화 되지 않도록 학교 내·외 이에 관련된 사람들과 연합하여 대처한다.

사회적 대책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금전·권력 지상주의를 타파하고 향락적 퇴폐풍조를 일소해야 한다.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유해한 성인 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과 범사회적 차원에서 건전 청소년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생활공간에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전문지도자들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문희영 외, 1996; 박효정, 2007b). 그러므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중요하다. 유흥 향락업소의 번창과 폭력문화 매체의 문제와 같은 사회환경의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놀이 공간의 부재는 그들을 유흥 향락업소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퇴폐적,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대중매체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경시나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각종 비행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유해 업소나 폭력 문화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의 보급과 전용 문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범사회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곽형식, 1999; 김범수, 2009).

지역사회와 관련된 대책으로는 유해환경의 정비, 놀이 공간 및 여가시설의 확보,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 강화, 사회적 건전성 회복, 지역사회 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비행학생들에 대한 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경찰,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유해환경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감시운동을 확산토록 한다. 그리고 유해업소의 법적 검토, 출판물 및 영상물의 규제, 청소년폭력 방지법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에서의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으로 ‘유해환경의 정화’와 ‘매스컴의 건전화’를 든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예방대책으로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사랑의 교실 운영, 명예경찰 소년단의 운영,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범죄예방교실의 운영, 배움터지킴이 전국확대), ‘법무부 소년보호국에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학교폭력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활용한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김범수, 2009).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범정부적 범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업소의 법적 검토, 성적이고 폭력적인 출판물 및 영상물의 규제, 청소년폭력 방지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김범수(2009)는 학교폭력발생에 대한 일반적

인 대처방안으로 ‘심각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대응방안의 효율성 제고’,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 ‘사후 선도활동의 강화’ 등을 든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부 등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2012년에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7대 실천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관계부처합동, 2012). 목표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이다. 직접대책과 근본대책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접대책으로는 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②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③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④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이고, 근본대책으로는 ①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②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③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등이다. 직접대책을 통하여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하고, 근본대책을 통하여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잘 하여 학교폭력사안이 은폐되거나 가해자 처벌위주로 처리되지 않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없애고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효과를 완충

하거나 적응유연성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개인이나 환경 자원으로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의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또래관계, 교사애착, 공정한 학교(학급)규칙(처벌포함), 또래 중재자 등이다. 반면에 학교폭력 발생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학급의 과도한 경쟁, 소외나 외톨이, 학교(학급)규칙의 부재나 비일관성, 교사의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 교사의 무관심과 방임 등이다(박효정, 2007a).

2008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각급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를 담당할 전담기구까지 설치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방교육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해학생 또는 가해 징후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도하거나, 일반학생들에게는 언제 당할지 모를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교과부, 2009).

예방교육은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미리 예방하게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학급 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을 신장시켜 원만한 사건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당국은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의 부족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각각 이해하고 그들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

홍종관

표 4.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강좌명	연수내용과 운영방법	시간
개강 및 등록		1
1.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최근에 개정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의 유형(특히 최근에 급증하는 강제적 심부름과 사이버 따돌림도 포함)과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청소년기라는 발달심리학적 원인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원인과악은 이어지는 상담과 치료전략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2.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각각 구분하여 알아봄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더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이어지는 상담과 치료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6
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상담 기법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각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 상담적 접근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훈련한다.	6
4.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집단상담 기법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각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집단 상담적 접근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훈련한다.	6
5. 학교폭력 가해자의 개인상담 사례 토의 및 지도조언	학교폭력 가해자의 상담사례 대표적인 유형별(신체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로 함께 읽고 이에 대해 토의하고 지도조언 한다.	6
6. 학교폭력 피해자의 개인상담 사례 토의 및 지도조언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 대표적인 유형별(신체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로 함께 읽고 이에 대해 토의하고 지도조언 한다.	6
7. 학교폭력 가해자를 위한 배려 및 분노조절 집단상담의 실제	학교폭력 가해자는 배려심과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분노조절이 잘 안 된다. 따라서 배려와 공감 능력신장을 위한 집단상담과 분노조절 능력 신장을 위한 집단상담을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연수생들은 이를 통해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6
8.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능력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의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증폭된다. 그리고 따돌림과 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따라서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집단상담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을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연수생들은 이를 통해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6
9. 사이버 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위해 상담기법과 사례 토의 및 지도조언	최근에 사이버 폭력과 따돌림과 같은 언어적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좌를 통하여 연수생은 사이버 폭력 상담 기법을 연습하고, 사이버 폭력 상담사례를 토의하고 지도조언 받는다.	6
10.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상담 기법 및 사례 토의 지도조언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과 그리고 가해 학생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의 협조 없이 가해자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해자 부모에게도 피해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자녀의 징후에 대해서도 알아야 더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연수생은 이러한 학부모가 필요한 것을 상담해줄 수 있는 내용과 기법을 학습하게 된다.	6
11. 지역사회의 학교폭력관련 기관 및 사업(Wee 프로젝트, One-Stop 등)과 연계 방법	교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지역사회 학교폭력관련 기관 및 사업을 잘 연계하여 대처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마찬가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3
평가 및 수료		2
	개강(1시간)과 평가 및 수료(2시간) 제외	60

하여 이를 상담과 치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각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를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이 연수에는 학교폭력학생을 돕기 위해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방법들과 최근에 급증하는 사이버 폭력과 따돌림과 같은 언어적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상담 기법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수는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상담기법과 치료전략을 실습하고, 이 학습한 상담기법과 치료전략을 학교폭력 유형별 실제사례에 적용하여 토의하고 지도조언 하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강좌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한 내용들을 고려한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60시간 연수내용과 운영방법을 예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당 등 한 장소에 전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학급단위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학급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예방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대상을 생활지도 교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와 학교의 직원까지도 포함된다. 예방교육 시 주의할 점은 예방교육은 단지 담임교사나 학교장 그리고 생활지도부만이

독자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 아니며 모든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각급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하여 실시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이슈화되는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2012)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결 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최근의 실태와 양상, 추가된 발생원인, 학교폭력관련기관의 최근 대책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관련자들에게 최근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즉 학교폭력의 최근 변화에 부합하는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이 연구목적을 위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최근의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의 연구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관련부처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②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③ 여학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하다. 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⑥ 폭력의 지속성이 증가하고 있다. ⑦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매우 낮다. 둘째,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 심리적 특성과 개인 심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②

학교폭력은 변화된 최근의 가정, 학교, 사회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③ 학교폭력은 최근 더욱 난폭해지고 다양해진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만성화되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각각 고려한 개인 심리적 대처방안 ② 최근의 변화된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에 부합되는 대처방안 ③ 그리고 학교폭력관련기관의 최근 학교폭력근절대책이 포함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요인들이 연계된 대처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학교폭력대처방안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때에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 대처방안에서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더 큰 청소년 비행과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과 성인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 일꾼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의 장소가 되며,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어 결실하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더 큰 청소년 비행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사회의 구성원들 즉 가정, 학교, 종교계, 사회단체, 정부 등 모두가 나서서 혼연일체가 되어 애정과 관심 속에 예방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체제를 탈피하고, 예방과 실태조사처방을 병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사회전반에 뿌리 내려야 할 것이다. 학교나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소기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학생, 교사와 더불어 나아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부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형식 (1999).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원인과 예방대책. 경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4(1).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구본용 외 (2008).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굿바이!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김범수 (2009). 학교폭력의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용현 (2003).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 (2008). 부모교육. 서울: 공동체.
 대구교육청 (2012a).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자료집.
 대구교육청 (2012b).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회 자료집.
 문희영 외 (1996).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개선 방안. 경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1).
 박성호 (2005).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명진 (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

- 지사.
- 박효정 외 (2007a).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외 (2007b).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 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 방안. 2012 교육정책네트워킹 교육현장순회토론회 자료집.
- 양미진 외 (2008).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증진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원명희 (200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학생폭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외 (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1, 2, 3.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012).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1년 학교폭력 트렌드 발표 및 대책강화추구' 기자회견 자료집(2011.05.03.).
- 최병찬 (2003).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자은 (1998). 청소년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종관 (1996). 효과적인 부모/교사-자녀/학생관계를 위한 기본태도와 방법. 학생생활연구 22. 대구교육대학교.
- 홍종관 (2009a).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9년도 제1차 초등교장 자격연수 교육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3-23.
- 홍종관 (2009b). 비행청소년의 교정상담. 한국교정상담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정상담학회. 13-27.
- 홍종관 외 (2003).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홍종관 외 (2009). 최신특수아동의 이해. 서울: 양서원.
-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3월 31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5월 07일
- ◆ 계 재 승 인 일: 2012년 5월 11일

A Study on the status, cause and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Jong-Kwan Hong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overview about recent school violence sought to find ways to cope.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and recent data were analyzed systematically.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the status,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chool violence is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The age of the perpetrator is getting increasingly younger. Girls' school violence is increasing. Perpetrators and victims, the distinction is unclear. Verbal and emotional violence is increasing. The persistence of violence are increasing. And the corresponding level of awareness about school violence is very low. The developmen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chool violence and personal effects caused b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complex. School violence is caused by family, school and society factors. School violence is caused by the lack of response. School Violence Action Plan should be considered developm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Measures include school violence, there is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Measures. There are environmental Measures such as home, school and society. There are measures related with environmental factors. There is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Key words : school violence, the status of school violence, causes of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